

# 김승기 · 이상민, 사령탑 라이벌 무대에

## 프로농구 단독선두 안양 KGC인삼공사 · 2위 서울 삼성... 오늘 안양홈에서 3라운드 대결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승기(44) 감독과 서울 삼성의 이상민(44) 감독이 새로운 사령탑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다.

21일 현재 인삼공사가 16승5패로 단독 선두, 삼성이 15승6패로 2위다.

두 팀은 오늘 안양삼체육관에서 3라운드 대결을 펼친다.

1년 선후배 관계인 두 감독의 대결이 흥미롭다. 둘은 1972년생으로 같지만 2월생인 김 감독이 한 학년 선배다.

김 감독은 중앙대 90학번, 이 감독은 연세대 91학번이다.

둘이 처음 만난 건 1990년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대회에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다. 같은 가드 포지션으로 금방 가까워졌다.

김 감독은 "나는 대학에 입학했고 이상민 감독이 흥대부로 졸업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감독은 그때도 정말 예쁘게 농구를 즐겼으며 "나는 달랐다. 그냥 깨부수는 저돌적인 농구를 했다. 잡초였다"고 했다.

이 감독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김)승기 형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승기 형이 고등학교에서 날아다닐 때부터 잘 알았다. 용산고 전승 멤버였으며 "승기 형이 농구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용산고 경기를 많이 챙겨봤다. 그때 나는 겨우 빛을 보기 시작하던 때"라고 했다.

김 감독과 이 감독은 1990년대 중반 농구대잔치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주역들이다. 1997년 프로 출범의 중심이기도 하다.

둘은 외모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다르다. 남자답게 생긴 김 감독은 휠 새 없이 뛰어나고, 힘이 좋아서 '터보가드'로 불렸다. 부상 탓에 현역 생활을 오래 하지 못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승기(44) 감독



서울 삼성의 이상민(44) 감독

했지만 가드 중 특색과 장점이 뚜렷했다. 근육질 몸에서 뿜어지는 힘은 웬만한 센터 못지않았다.

이 감독은 "한 번은 대표팀에서 승기 형과 (현)주요업자가 씨름을 한 적이 있다. 다들 주요업자가 이길 줄 알았지만 비겼다. 끝내 승부를 내지 못했다. 그 정도로 힘이 좋았다고 했다. 살바를 대신했던 바지가 5벌이나 찢어질 정도로 치열했다고 한다. 김 감독은 남성 팬이 많았다.

이 감독은 정반대다. 힘보다 타고난 센스와 기술이 훌륭했다. 정확하고, 예리한 농구를 즐겨 '컴퓨터 가드'로 불렸다. '오빠부대'를 물고 다녔다. '산소' 같은 남자,

병원한 오빠라는 별명도 그때 생겼다. 연세대 전성기를 이끌었고, 프로 데뷔 후에는 9년 연속으로 올스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010년 은퇴식에선 많은 여성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

김 감독이 삼성 출신, 이 감독이 현대 출신인 점도 눈에 띈다.

먼저 감독이 된 건 이 감독이다. 2014년 4월 삼성 감독으로 부임해 이번이 3번째 시즌이다. 데뷔 시즌에 최하위를 찍었지만 지난 시즌 5위로 6강 플레이오프에 갔다.

김 감독은 2006년부터 약 10년 동안 원주 동부, 부산 kt 등에서 코치를 하다가 지난해 9월 인삼공사 감독대행을 맡았다. 올해

1월1일자로 정식 감독이 됐다. 지휘봉을 잡은 첫 시즌(2015~2016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공교롭게 둘은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다. 인삼공사가 3승1패로 졌었다.

이번 시즌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인삼공사가 단독 선두에 있지만 유일하게 삼성을 이기지 못했다. 1~2라운드에서 모두 졌다. 3라운드 대결에 큰 관심이 쏠린다.

삼성에는 21일 집전 끝에 디펜딩 챔피언 고양 오리온을 꺾으며 2연패에서 탈출했다. 인삼공사와 삼성의 3라운드 승부는 선두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기농연맹 순영환 회장 등 17명 등이 수상하였다. 금년 한해 전북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감사패와 표창패 수상자는 최종필 정음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28명이 수상하였다.

# 전북체육회, 2016 전북체육 시상식 개최

## 전문체육 부문 진안군청 역도팀 대상 등 11개 부문 102명 수상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2일 전주 오벨리스웨딩홀에서 올 한해 전북체육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6 전북체육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북체육회 송하진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이인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과 전북체육회 고문, 임원 등 체육계 인사 등도 대거 참석했으며 수상자를 비롯하여 종목단체장 및 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식전공연에 이어 한 해 결산 영상상영과 도 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의 체육상 심사결과 보고, 각 부문별 유공자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체육대상,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도부문, 공로부문, 감사패, 표창패, 특별 표창패, 모범회원단체, 체육기자단상 등 11개 부문에서 102명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전문체육 부문 대상은 금년 충남에서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

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진안군청 역도팀이 수상하였으며, 학교체육 부문 대상에는 금년 체전에서 여고부 탁구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이일여고 탁구팀이 수상하였다. 또한 생활체육부문 대상에는 지난 10월 남원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게이트 볼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 남원 시게이트볼협회 김기환 회장이 수상하였다.

분야별 수상자로는 전문체육 부문에 정음시청 씨름 이병주 선수 등 7명, 생활체육 부문에 유인희 전주시체육회 직원 등 12명, 학교체육 부문에 순창북중학교 역도 신민재 선수 등 9명, 지도부문에 전주시청 수영 김홍량 감독 등 19명, 공로부문에 전

북기농연맹 순영환 회장 등 17명 등이 수상하였다.

금년 한해 전북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감사패와 표창패 수상자는 최종필 정음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28명이 수상하였다.

이밖에 모범회원단체에는 전북공도협회와 전북국악기공협회, 완주군 체육회가 수상하였으며, 체육부 기자단이 선정한 올해 지도자와 선수상에는 전북체육회 공도팀 왕희서 감독과 군산상고 야구팀이 수상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올 한해 전북체육 통합을 이루는 등 한 해 동안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회원단체를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전북현대 내년 시즌 새로운 선수 6명 영입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2017시즌을 위해 6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담금질을 시작했다.

전북은 자유 계약을 통해 올림픽 출신 센터백 김민재와 국제정예를 영입하고 우선 지명으로 유승민, 이재형을 영입했다. 이어 호남대 허준호와 중앙대 박원재까지 총 6명을 2017년 시즌 신인 선수로 영입했다.

영입 선수 중 가장 기대 받는 센터백 김민재는 고교 왕중왕전 수비상 대학 춘계 연맹전 수비상을 수상하고 올림픽 국가 대표로 활약했다. 190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제공권과 단단한 몸싸움은 큰 기대를 모으게 하는 요인이다.

단국대 출신으로 U-19, U-22 대표팀에서 꾸준한 부름을 받았던 국제정예 공격수 출신의 풀백으로 준수한 수비력과 날카로운 공격력을 모두 갖춘 선수이다.

전북의 U-18 영생고 출신인 유승민과 이재형은 전북 유소년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재목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유승민은 2014 AFC U-16 챔피언스리그와 2015 FIFA U-17 월드컵 등 세계무대에서 뽐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유승민은 사이드 공격과 중앙 공격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이다.

/\*김민근기자

### KCC경기 군산에서도 볼수있다

24일 창원LG · 1월 1일 서울삼성 · 3일 서울SK

전주KCC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 4번째 군산을 찾는다. 군산월명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24일 창원LG 1일 서울삼성, 3일 서울SK팀과 3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군산에 제2연고지를 두고 있는 KCC이비스는 군산시민의 열렬한 환호에 보답하고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가정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농구꿈나무 지원 등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군산시는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변석 교체, 전광판 시공 등 체육관 환경정비로 프로농구 개최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마쳤으며, 연말연시 팬들을 위한 홈 작전타입과 쿼터종료 후 경기 사이사이 각종 이벤트와 선물 등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농구 경기 입장권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경기시작 4시간 전에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채행석 체육진흥과장은 "동계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 찬 군산시민의 성원으로 매년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며 "꾸준한 사랑으로 보다 많은 프로농구 경기가 군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농구장을 찾아 주시길 바라며, WITH US KCC!의 기분 좋은 함성이 끊이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